

베트남(Vietnam)에 거주하는 베트남인의 주거 및 주생활 특성 : 재한(在韓) 베트남인 이주 노동자의 주거 계획을 위한 기초 연구*

Comparative Analysis of Housing Plans between Vietnamese in Korea and Vietnam for Vietnamese Migrant Workers in Korea

가톨릭대학교 소비자주거 전공
연구 교수 이 영 심
교 수 최 정 신

Consumer & Housing Studie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Research Professor : Young Shim Lee

Professor : Jung Shin Choi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결과해석 및 논의 |
| II. 연구방법 | V. 결론 및 제언 |
| III. 베트남에 대한 일반적인 배경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state of housing and domestic living conditions of Vietnamese individuals in Vietnam and Korea. Using ethnographic methodologies, It was examined 22 Vietnamese households in Korea in relation to their usage of domestic space and also conducted the same investigation on 20 Vietnamese households in Vietnam. The following conclusion were established; 1) The majority of households in both countries preferred that the kitchen was close to the dining room and living room while a kitchen door was not deemed as necessary. 2) In Korea, washing machines are used in the bathroom space, while in Vietnam they are used outside or in a specially designated space. 3) The most uncomfortable aspect of home life in Korea was having the bathroom and toilet in the same space while in Vietnam they are separately spaced. It is recommended that house plans with separate bathroom and toilet area be made available for Vietnamese migrants. 4) Chairs were used in the sleeping area for eating, especially if guests were present, but the floor space was also used for eating. 5) Tile is a typical floor material in Vietnam while vinyl is popular in Korea. However, migrant workers were comfortable with both materials. 6) All 20 households didn't have any heating system in Vietnam but most migrants preferred a modified Ondol in Korea. 7) Most migrants took their shoes off while inside the house in Vietnam and Korea.

Corresponding Author : Young Shim Lee, Consumer & Housing Studie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era, 43-1 Yokgok2-dong, Wonmi-gu, Buchen city, 420-743, Korea Tel:+82-2-2164-4836 Fax:+82-2-2164-4301 E-mail:yslee99@hanafos.com

* 본 논문은 2009년도 학술진흥재단 학문후속세대양성사업(연구과제번호: C00074)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Furthermore, the majority of households didn't have any designated shoes space at the entrance to the house in Vietnam and most were satisfied with the same situation in Korea. 8) Most households in Vietnam and Korea preferred to decorate their living room with various things or as a place of worship to their ancestors. The direction of house was an important element when deciding to buy or building houses in both countries.

주제어(Key Words) : 이주 노동자(immigrant workers), 베트남인(Vietnamese), 주거 공간(domestic space), 주생활(domestic living), 기거 양식(seating style)

I. 서론

전 세계의 모든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국가 간 노동력의 이동은 노동의 기회와 임금의 격차에 의거한 것으로 정보통신 기술과 교통의 발달에 따라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전 세계적인 이주자의 수는 지난 30년 사이에 두 배 이상이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이주는 미국, 호주, 캐나다 등 전통적인 이민 국가 뿐 아니라 거의 모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으로 확산되고 있다(매일경제, 2008.2.5). 우리나라에는 2008년 1월 말 현재 110만 명에 이르는 외국인이 체류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그 수가 253만 9천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매일경제, 2008.2.5)¹⁾. 이 중 이주 노동자의 수는 우리나라 총 인구의 3.0%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산업에서 이주 노동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의미하며 산업의 발전과 함께 이들의 수 또한 증가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한국일보, 2008. 4.21). 우리나라 정부가 외국 인력의 일자리 보안을 위하여 매 2년마다 10년 주기로 인력수급 전망을 도출하고 이에 의거하여 외국 인력의 연차별 도입 규모를 정하기로 한 방침은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다(노동부, 법무부 보도자료, 2008). 전 세계적인 경제 침체의 영향으로 2010년까지 새로 도입할 국내 이주 노동자의 수는 작년보다 대폭 감소된 3만 4천명으로 확정되었다(http://migrant.nodong.net/ver3/, 2009). 그러나 출산율의 저하와 고령화 등에 따른 청, 장년층 인력의 감소 그리고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문제는 1980년대 말 이주노동자들의 유입 이전부터 계속되어 온 현상임을 고려할 때 이주 노동자의 유입은 그 규모에서의 변화와 함께 지속될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에 이주 노동자가 들어오기 시작한 지 20여년이 되어가는 현재까지 이들과 관련한 연구는 주로 이주 노동력과 관련한 경제 분야 그리고 법률 분야 등에서 수행하여 왔으며 주거관련 분야에서의 연구는 활발하지 못한 편이었다. 주거 분야에서의 대표적인 연구는 경기개발연구원(2006)과 국가인권위원회(2002)가 실시한 국내 이주 노동자들의 주거 실태에 관한 연구²⁾ 그리고 최근 국가정보원에서 펴낸 보고서 등이 있다.³⁾ 우리나라에서 일하고 있는 이주 노동자들을 위

한 정책을 만들고 이를 지원하는데 있어서 기본이 되어야 하는 것은 이들을 노동력으로서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인지하는 것이며 이는 곧 안정된 다문화(多文化) 사회를 만들 수 있는 밑바탕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다방면에서의 사회적인 지원과 제도적인 방안이 지속적이고도 장기적인 차원에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조선족(朝鮮族)을 그 첫 연구 대상으로 하여 길림성 거주 조선족과 재한 조선족의 주거 및 주생활에 대한 비교 연구(이영심, 최정신, 2007)를 하였으며 두 번째는 고려인(高麗人)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구소련에 거주하는 고려인과 재한 고려인의 주거 및 주생활에 대한 비교 연구(이영심, 최정신, 2008)를 하였고 그 결과 재한 조선족 이주 노동자와 재한 고려인 이주 노동자를 위한 주거계획 요소를 제안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그를 잇는 세 번째 연구로서 베트남인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1차적으로 우리나라의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베트남인 이주 노동자의 주거 및 주생활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이영심, 최정신, 2009).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베트남 현지(現地)에 거주하는 베트남인의 주거 및 주생활에 대한 연구 조사를 하였으며 이를 1차 연구에서 수행한 재한 베트남인에 대한 연구 결과와 비교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베트남의 주거 형태가 지역에 따라 어떠한 특성이 있으며 지역에 따른 주거의 변화 과정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그 안에서의 주생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관찰하고자 하는 것이다. 아울러 이를 앞서 연구한 재한 베트남인의 경우와 비교함으로써 주거의 이동에 따른 주거 문화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즉, 재한 베트남인들

- 1)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국적은 2007년 현재 47.2%가 중국인(50만 명)이며 다음으로 미국(11만 명), 베트남(7만 명), 필리핀(5만 명), 태국(4만7천명), 일본(4만1천명) 등의 순이다. 2008년 현재 11만 명에 이르는 국내 결혼 이민자는 2050년에 81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매일경제, 2008. 2. 5).
- 2) 해당 연구들은 재한 이주 노동자들의 열악한 주거 실태를 보고하였으며 이러한 주거 실태가 결과적으로 불안정한 주거 환경을 만들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 3) 해당 보고서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실태에 관한 연구 결과 외국인들의 주거 상황, 취업 형태, 수입, 복지 수요 등에 대한 전국적인 실태 조사가 시급함을 지적하였다(중앙일보, 2007. 7. 8).

의 주생활에는 원 거주지에서의 경우와 같은 관습적인 주거 문화 요소 그리고 원 거주지와는 다르게 변화한 주거 문화 요소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며 이러한 주거 문화 요소는 앞으로 재한 베트남인 이주 노동자들을 위한 주택 계획 시 중요한 계획 요소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⁴⁾ 이들의 주생활 면에서의 관습과 동화 정도가 반영된 거실, 식사실, 부엌의 연결유형, 욕실 설비의 구성, 세탁 공간, 신발차탈 공간 및 바닥재 등의 주거 계획 요소는 결과적으로 이들에게 보다 실용적인 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거주자의 주거 문화를 고려한 계획이라는 점에서 일률적인 주거 지원과는 구별되는 의의가 있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지역의 선정

본 연구는 동남아시아에 위치한 베트남을 연구대상 지역으로 하여 현장 연구를 중심으로 수행하였다. 베트남의 국토는 남북으로 길고 가는 모양으로 지역에 따라 기후 특성의 차이가 크다. 즉, 베트남에서 가장 큰 도시인 호치민이 위치한 남부 지역은 크게 건기(乾期)와 우기(雨期)로 나뉘며 연중 기온이 26℃-28℃인데 비하여 베트남의 수도인 하노이가 위치한 북부 지역은 사계절이 있으며 여름에는 30℃ 이상, 겨울에는 10℃ 이하로 그 차이가 크다. 주거와 주생활은 자연환경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는 것이므로 건기와 우기로만 구분되는 남부 지역에 비하여 사계절이 존재하는 북부 지역의 경우에 보다 다양한 주거 및 주생활을 관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연구대상 지역을 북부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한편으로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베트남 출신 이주 노동자들은 북부 출신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북부가 남부에 비하여 경제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으로 이러한 배경 또한 연구대상 지역을 북부로 정한 이유이다.⁵⁾ 따라서 베트남 북부 지역의 주거와 주생활을 고찰하기 위하여 북부의 중심 도시인 하노이 시(市)와 홍이엔 시(市) 두 지역을 본 연구의 연구대상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2. 연구 방법 및 내용

본 연구는 2009년 2월 10일-2월 20일에 베트남 북부의 하노이 시와 홍이엔 시를 중심으로 하여 수행하였다. 연구대상 지역으로 하노이와 홍이엔 두 지역을 선정한 이유는 연구대상 지역인 베트남의 주택 유형을 도시 지역의 주택과 농촌 지역의 주택으로 구분하여 관찰하기 위해서이다. 즉, 하노이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에서는 도시 주택 유형을, 하노이에서 약 40km 떨어진 홍이엔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에서는 농촌

주택 유형을 관찰하였다. 하노이에서는 김마, 초 트로이, 판 탄시안 등의 지역에서 단독주택 10가구를 방문하였으며 홍이엔에서는 홍이엔 면과 디수 면 등의 지역에서 단독주택 10가구를 방문하였다.⁶⁾

연구 방법은 소수의 사례를 심층 분석하는 질적(質的) 연구인 문화 기술적 현장연구(Ethnographic field study)⁷⁾의 틀을 기본으로 하여 질문지법을 병행하였다. 즉, 조사대상 가정을 방문하여 관찰하고 주부와 면담을 하였는데 면담 내용은 질문지에 기초한 것 뿐 아니라 해당 주택의 관찰에 기초한 질문 등이 부가되며 이에 대한 면담자의 응답과 부연 설명 등으로 구성된다. 또한 면담한 주택의 내부와 외부를 사진 촬영하였으며 방문한 주택 중에서 일부 주택을 실측하였다. 질문지의 내용은 크게 주공간 면과 주생활 면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공간 면은 각 주택의 거실, 식사실, 부엌의 연결 유형, 각 공간의 계획과 평가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며 주생활 면은 주공간 별 주생활, 각 활동별 입식과 좌식의 정도 그리고 주공간 별 바닥재 및 난방 방식 등에 관한 내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공간 면은 홍이엔과 하노이로 지역을 구분하여 농촌 주택과 도시 주택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주생활 면은 두 지역을 함께 분석하였다.

- 4) 조선족과 고려인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는 주거 계획의 중심 구성 요소인 거실, 식사실, 부엌의 연결유형, 욕실과 세탁 공간 그리고 입식과 좌식의 정도 및 바닥재와 난방 방식 등을 원 거주지인 중국, 우즈베키스탄과 우리나라의 경우를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조선족과 고려인 모두 원 거주지의 경우와 같거나 변화한 구성 요소들을 가지고 있었으며 구성요소 별 지속과 변화의 내용이 달라 조선족과 고려인의 주거 문화가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이영심, 최정신, 2008; 이영심, 최정신, 2007).
- 5) 2008년 현재 성북구에서 베트남 공동체의 천주교 모임을 주관하고 있는 팜 신부와 면담(2008.7.18) 결과, 재한 베트남 이주 노동자들 중 호치민 등의 남부 출신은 20.0% 이하이고 하노이 등의 북부 출신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베트남의 북부와 남부는 기후가 다를 뿐 아니라 북부는 유교 문화, 남부는 프랑스 문화를 기본으로 하는 만큼 양 지역의 생활 양식이 다르고 기질 면에서도 차이가 있으며 남부보다 북부 지역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 6) 하노이 지역에서는 도시주택의 유형을 전통 나용(2사례), 변형된 나용(4사례) 그리고 일반 다층주택(4사례)등으로 고루 표집하여 다양한 도시주택 유형을 보고자 하였으며 조사대상 지역 역시 도심(김마, 포 항가이, 포 타이켓 등: 4사례)과 중간 지역(초 트로이, 판 타이호 등: 3사례) 그리고 외곽지역(판 탄시안 등: 3사례)으로 분류하여 표집하였다. 홍이엔 지역에서는 전통주택 유형과 변형된 유형이 고루 분포되어 있는 홍이엔 면(6사례)과 디수 면(4사례)을 조사대상 지역으로 하였고 각 지역에서 4, 5대(代)씩 거주하고 있는 거주자들의 자문을 통하여 방문할 주택을 선정하였다. 하노이의 경우 전체 주택의 80% 이상이 단독주택이며 대부분의 베트남인들이 아파트보다 단독주택을 선호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http://cafe.daum.net/viethoa/CNyR/178>).
- 7) 문화인류학 바탕의 문화 기술적 현장연구는 관찰과 면담을 하면서 기록, 분석하고 그 결과가 다음 단계의 관찰과 면담을 끌어내는 순환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다(이희봉, 1998).

또한 이상의 결과를 선행 연구인 재한 베트남인의 주거 및 주생활에 대한 연구 결과와 비교하였다. 주거공간 유형, 부엌, 욕실, 실내 바닥재 그리고 주택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 정도는 아주 만족한다(5점)-아주 불만족하다(1점)의 5단계로 측정하였으며 이는 분석 과정에서 평균 점수로 평가하였다. 본 연구는 베트남의 주택과 생활의 소수 사례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이것을 베트남인 전체의 주택과 생활로 일반화하기에 무리가 있음을 밝힌다.

Ⅲ. 베트남에 대한 일반적인 배경

1. 연구대상 지역과 베트남인의 특성

인도차이나 반도의 동부에 위치하는 베트남은 중국, 라오스, 캄보디아에 인접해 있으며 면적은 331,690km²로 한반도의 약 1.5배이고 최북단과 최남단의 거리가 1,750km에 이른다(그림 1). 북부는 아열대성 기후이며 남부가 건기와 우기로 구분되는 것에 비하여 북부는 춘하추동이 비교적 뚜렷하다. 또한 북부 및 중부 지역이 태풍의 영향권에 있어 매년 피해가 발생하나 남부는 연중 기온 변화가 심하지 않으며 태풍의 피해를 거의 받지 않는 등의 차이가 있다. 전 국민의 대부분(89.0%)이 비엠티(Viet)족이며 53개 소수민족이 전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고 약 100만 명의 화교가 거주하고 있다.

베트남은 기원전 111년 이후 1,000년 이상 중국의 지배를 받았으며 938년 독립한 이후 1406년에 다시 명나라의 속국이 되었다. 1802년에 왕권을 되찾았으나 1887년에 프랑스가 인도차이나를 점령하면서 북부, 중부, 남부로 분할되었다가 1954년에 프랑스가 전쟁에서 패하면서 북위 17도를 경계로 하여 북쪽에는 베트남민주공화국이, 남쪽에는 베트남공화국이 설립되었다. 1964년에 시작된 남북 간의 전쟁이 1975년에 끝나면서 1976년에 하노이를 수도로 하는 베트남사회주의 공화국이 성립되었다. 1986년부터 베트남은 도이머이(쇄신) 정책을 시작으로 국제사회에 문호를 개방하였으며 1990년대부터 연평균 7-8%의 고도성장을 계속하고 있다. 현재 베트남의 가장 큰 도시는 남부의 호치민으로 약 500만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수도인 북부의 하노이에는 약 300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Thuy, 2002).

베트남은 동아시아에서 중국, 필리핀에 이어 많은 이주노동자를 송출하고 있으며 이주노동자들은 주로 비숙련, 반숙련의 노동자로 절반 이상이 여성이다(http://www.foa2002.or.kr/, 2008). 우리나라에 베트남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1998년으로 이때는 약 1,000명의 이주 노동자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4년에 양국 사이에 인력송출 양해각서(MOU)가 체결되면서 2008년 현재는 약 4만여명의 베트남인들이

남인들이 약 4천 개의 일터에서 일하고 있다(유엔 티 항, 2008)⁸⁾. 재한 베트남 이주 노동자들의 소득은 원 거주지에 비하여 8배가 넘는 것으로 평가되며(석현호, 정기선, 이정환, 이해경, 강수돌, 2003) 원 거주지로 돌아간 후에도 현지 평균 소득의 2배를 받을 수 있어 많은 이들이 한국에서 일하기를 원하며 베트남 정부 또한 이들로부터의 기술 도입을 기대하고 있다(안동지역 외국인이주여성회, 2007.6.28). 점차 증가하는 결혼 이주 또한 재한 베트남인의 이주 노동율을 높이는 또 하나의 원인이다.⁹⁾

베트남은 사회주의 폐쇄경제에서 시장경제로 그리고 다시 개방경제로 전환하면서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24세 이하의 젊은 층이 약 4천 3백만에 달해 적어도 향후 20-30년간 경제발전을 위한 인력이 충분하며 노동력의 질 또한 매우 높다. 한편으로 베트남은 전 국민의 75.0%가 농촌에 거주하고 있어 농촌 인구의 도시 유입이 급속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베트남플라자 편집부, 2007). 이러한 배경에서 베트남의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베트남 이주 노동자들의 유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이들의 주거 및 주생활에 대한 지원책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



〈그림 1〉 조사대상 지역인 동아시아의 베트남

8) 2008년 8월 2일 주한 베트남대사관과 신한은행이 주최한 ‘재한 베트남 이주 노동자의 날’에 유엔 티 항 베트남 노동보훈 사회부장관이 베트남 출신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축사에서 언급한 내용이다.
9) 베트남 여성과의 결혼은 2004년에 비하여 2008년 현재 136.5%가 증가하였다. 국제결혼으로 국내에 유입한 베트남 여성들은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일을 시작하거나 혹은 파경(破鏡)으로 이주 노동자가 되기도 한다.

2. 베트남의 주거와 주생활

베트남의 주거는 크게 농촌 지역의 주거와 도시 지역의 주거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베트남의 주거 특성과 관련한 자료(전봉희, 이경아, 주상훈, 2006; Nguyen, Nguyen, Cohen, 2006; Nguyen, 2008, Thuy, 2002)와 연구대상 지역인 흥이엔 지역과 하노이 지역의 주택을 방문하여 거주자들과 면담한 자료를 참고로 하여 농촌 주택과 도시 주택의 일반적인 특성을 정리하였다.

1) 농촌 지역의 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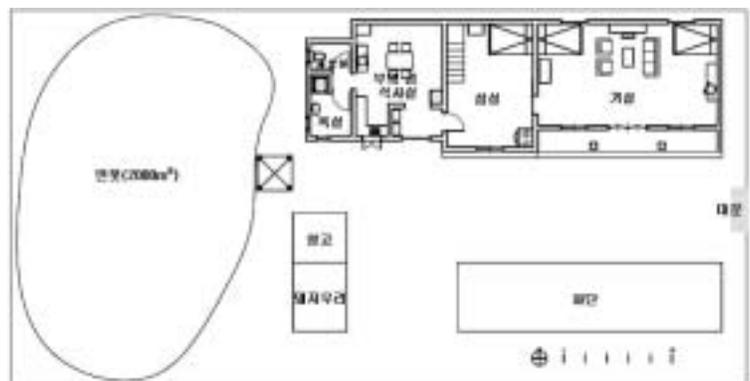
베트남인들에게 있어 주택은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몬순기후 지역에 속하는 베트남은 선사시대부터 주택의 방향을 중시하였으며 중국 문화의 영향으로 주택 건축 시(時) 집 주인의 나이와 집 짓는 해를 관련지어 생각하였다. 또한 이들은 거주 지역의 기후를 조성하는 배경으로 풍수(風水)를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하였다. 농촌 지역은 대개 차이나나무, 대나무 등을 사용하여 주택을 지었는데 부유한 경우에는 개오동, 경질목재, 창피나무, 티크나무 등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또한 지붕의 재료는 오래된 야자나무 잎이나 짚, 대나무, 사탕수수 잎 등을 사용하였다(Thuy, 2002). 농촌 지역에서는 최근 10여년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우선 주택 재료 면에서 목재 대신 벽돌을 일반적으로 사용하게 되었으며 전통적인 단층주택에서 2, 3층의 다층주택으로 변화하고 있다. 지붕의 재료 역시 짚이나 대나무에서 합성판 혹은 기와를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지붕의 모양 또한 전통적인 경사 지붕에서 평지붕과 경사지붕을 함께 사용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베트남의 농촌 주택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그 기본 구조는 마당을 중심으로 본채와 부엌채 그리고 가축을 키우는 우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당을 중심으로 가운데 위쪽에 세 칸 혹은 다섯 칸으로 이루어진 본채가 있으며 부엌은 본채를 중심으로 왼편 혹은 오른편에 별도의 건물로 위치하고 그 옆에는 닭과 돼지 등을 키우는 가축우리가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부엌채의 한 쪽에는 텃밭을 두고 있고 앞마당과 뒷마당에는 바나나 나무 혹은 까우 나무 등을 심는데 이는 바람을 막고 집안에 그늘을 만들어 준다. 주택에 따라서 마당 한쪽에 연못이 있는 경우도 있어 물고기를 낚기도 하며 물가에 지어 놓은 작은 원두막에서 여가를 즐기기도 한다. 현재 전통적인 농촌 주택의 원형

을 보기는 쉽지 않는데 이는 최근 10년 간 대부분의 주택에서 채의 위치와 구성에 크고 작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본채의 칸은 홀수로 구성하는데 가운데 거실 3칸과 양쪽의 방 1칸씩으로 총 5칸으로 구성하거나 주택의 규모가 큰 경우는 거실 3칸과 양쪽의 방을 2칸씩 하여 총 7칸으로 구성하기도 한다(사진 1). 거실의 가운데에는 조상의 신주를 모시는 제단을 두는데 주택의 가운데에 제단을 두는 것은 조상을 존중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제단의 앞이나 옆에는 나무로 만든 큰 상을 두어 일상적인 가족단란과 가족 식사 그리고 손님접대 등에 사용하는데 주택에 따라서는 거실 한쪽에 의자와 탁자를 두어 이를 대신하기도 한다. 제단의 양쪽에는 침대를 두어 취침에 사용하는데 거실의 규모에 따라 그리고 가족 수에 따라 침대의 수에 차이가 있다. 침대의 종류는 원목을 잘라 그대로 붙여 만든 것과 나무판자를 잘게 쪼개어 바닥을 만든 것 그리고 대나무를 쪼개어 바닥을 만든 것 등이 있으며 여기에 돛자리 혹은 요를 깔아 사용한다. 대부분의 주택에서 거실은 부부 침실로 사용하며 거실 옆의 방들을 자녀 침실로 사용하는데 3세대 가족인 경우는 조부모가 거실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고온다습한 기후로 인하여 모기장의 사용이 필수적으로 대부분의 주택에서 침대 주변에 돛을 박아 모기장을 사용한다.

농촌 지역에서 노후화한 주택은 개조를 하여 사용한다(그림 2). 농촌 주택에서의 일반적인 개조 항목은 주택의 지붕 높이기, 침실 덧붙이기 그리고 외부에 있던 부엌, 화장실, 욕실을 주택 내부에 계획하기 등이다. 부엌을 별채로 두었을 때 사용했던 연료는 짚풀, 나무 혹은 연탄 등이었으며 부엌에서 조리한 음식을 본채의 거실로 옮겨와 바닥에 앉아 식사를 하였다. 화장실은 마당 한 쪽에 재래식으로 두었으며 욕실은 벽돌로 간단하게 만든 샤워실의 형식이었다. 주택 개조 시 주택 내부의 바닥재도 벽돌에서 타일로 바꾸는 것이 일반적이며 마당에도 타일을 까는데 타일은 비가 많이 오는 우기



〈그림 2〉 2001년 개축한 농촌주택의 배치도 및 평면도(흥이엔:X씨택)

에 땅이 질어지는 것을 막아주고 물이 빨리 빠지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타일 바닥은 마당에서 곡식을 말리기에 유리하며 이 지역의 중요한 교통수단인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세워두기에도 편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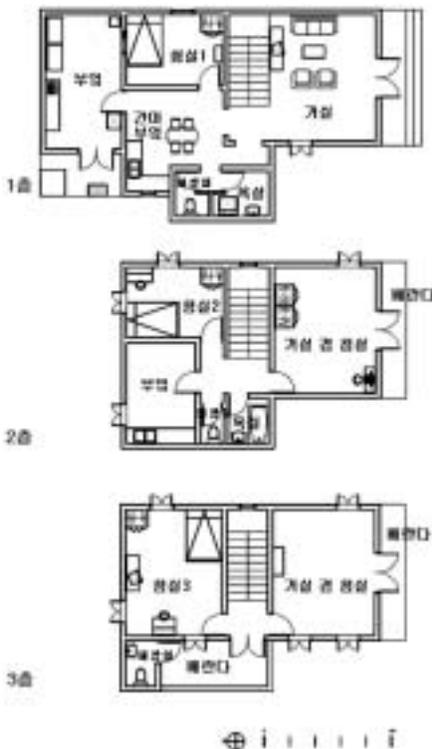
최근 농촌 지역에도 다층 주택을 많이 건설하고 있는데 많은 경우가 도시형 주택인 냐옹(Nha Ong)과 유사하다. 냐옹은 주택의 앞면이 좁고 뒤가 긴 형태로 도롱집(筒家) 혹은 튜브 하우스(tube house) 라고도 부르는데 냐옹식 주택을 신축하여 1층은 조부모, 2층은 아들부부 그리고 3층은 손자들이 사용하는 식으로 각 층별로 세대를 구분하여 거주하기도 한다(그림 3). 농촌 지역에서 냐옹식 주택을 짓는 이유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택지 혹은 주택을 형제들이 분배하는 과정에서 모든 주택이 길가에 면할 수 있도록 택지 분배를 하기 때문이다.¹⁰⁾ 최근 농촌 주택에서는 여러 채의 냐옹식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마당을 분할하여 팔고 그 비용으로 뒤편의 단층 주택을 다층으로 올려서 거주하기도 한다. 한편으로는 택지 분배와 관계없이 주변을 모방하여 냐옹식 주택을 짓는 경우도 많아 이러한 점에서 냐옹은 도시 지역 뿐 아니라 농촌 지역에서도 일반적인 주택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사진 2>.



<사진 1> 가운데의 거실3칸과 양쪽의 방 2칸으로 구성된 본채 (흥이엔:L씨택)



<사진 2> 오래된 단층주택(왼쪽)옆에 신축한 냐옹식 주택 (오른쪽)의 모습(흥이엔)



<그림 3> 2005년 건축한 냐옹식 주택의 평면도 (흥이엔:T씨택)

2) 도시 지역의 주거

리 왕조(Ly, 1009-1225)에 의해 1010년-1831년까지 탕롱(Thang Long)으로 불렸던 하노이는 초기부터 왕궁과 상업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었으며 상업 지역은 왕궁과 홍강, 포릭 강(江)과의 사이에 위치하여 있었다. 1888년에 하노이가 프랑스 인도차이나 연방의 수도가 되면서 프랑스 지역이 새롭게 개발되었고 왕궁의 서부와 상업지역의 남부에 걸쳐 프랑스인들의 생활 지역이 형성되었다(Nguyen, Nguyen, & Cohen, 2006). '36거리 지구'¹¹⁾라고도 불리는 하노이의 상업 지역은 19세기말- 20세기 초에 걸쳐 많은 변화를 겪었는데 이 변화는 상업 지역을 형성하고 있는 주택인 냐옹의 변화, 발전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도시 지역의 냐옹은 보통 2, 3층에서 높게는 4, 5층으로 구성되며 건물의 폭이 40미터-120미터로 좁고 긴 것이 특징이다. 일반적으로 1층의 길가에 면한 부분은 상점 혹은 공방(工房)으로 사용하며 주택의 뒷부분과 앞부분은 주거 공간으

10) 베트남에서 길가에 면한 주택은 가격이 매우 비싸다. 베트남인들은 이러한 주택을 절대적으로 선호하는데 그 이유는 길가에 면한 주택은 언제라도 가게를 열 수 있는 유리한 환경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11) '36거리 지구'는 36개의 전문화된 물품을 취급하는 상업 집단이 거리별로 자리를 잡게 되면서 비롯되었다.

로 사용한다(Nguyen, 2008). 1900년 이전에 건축된 나용은 경사지붕을 가진 1, 2층의 목조주택이었으나 20세기 이후에 동남아시아 화교들의 이주와 함께 프랑스 건축의 영향을 받아 벽돌과 타일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건축 양식이 변화하게 되었다. 1975년에 세 차례의 인도차이나 전쟁이 끝나고 1986년에 도이머이 정책을 시행하면서 나용은 급속하게 고층화되어 7층까지 올라갔으나 1990년대 중반 이후에 도시보전 차원에서 고도제한을 지정하였다(전봉희, 이경아, 주상훈, 2006).¹²⁾〈사진 3〉〈사진 4〉.

하노이에 나용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은 호수와 습지가 많았던 지리적인 특성에 의하는데 이는 프랑스에 의한 도시 개발로 호수와 늪지가 매립되면서 더욱 가속화되었다. 즉, 초기의 간선 가로망은 호수와 늪지를 피하여 계획하고 길을 따라 시설과 주거지를 배치하였는데 때로는 길 안쪽에 호수가 없는 경우에도 길을 따라 주택을 배치하고 그 배후는 경작지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후 프랑스의 개발 정책으로 길 안쪽의 호수들이 매립되고 이에 따라 주택들이 길 안쪽으로 더 연장되거나 혹은 안쪽으로 새로운 주택들이 밀집하여 건축되었다. 이렇듯 지리적인 환경에 의하여 건설되기 시작한 나용은 현재 베트남 전역에서 볼 수 있는 주택 형태가 되었으며 건축 재료와 건축 양식(樣式)의 발전으로 점차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다.



〈사진 3〉 100년 전 하노이 시내를 재현한 모습
(하노이 민속촌: 2009.2.18)



〈사진 4〉 현재 하노이 시내 '36거리 지구'의 모습(2009.2.19)

하노이 지역의 도시 주택은 전통 나용, 변형된 나용 그리고 2, 3층의 다층 주택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빌라(villa)와 4-5층의 저층 아파트 그리고 고층 아파트 등이 활발하게 건설되고 있다. 빌라는 정원이 있는 2, 3층의 단독 주택을 일컫는데 아파트보다 개인주택을 선호하는 베트남인들에게 이상적인 유형으로 인식되어 있다. 베트남 지역에서 아파트는 1950년대-1970년대에 회사원 혹은 공무원들에게 배급하기 위한 용도로 짓기 시작하였는데 1990년 이후에 서구의 자본이 들어오면서 더욱 활발하게 건설되고 있다. 2000년 이후에 건설한 아파트의 평면상의 특징은 부엌을 거실, 식사실과 한 공간에 두는 오픈 플랜 유형이 일반화되고 있는 것이며 이에 대한 베트남인들의 선호 정도는 점차 높아지고 있다.(Vu Van The, 2007)¹³⁾ 최근 하노이에는 미싱 송다, 씨프차, 쯙화 등의 지역에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고 있는데 건물의 디자인 뿐 아니라 거주자를 위한 자연 환경 및 편의 시설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주택 가격 및 거주 비용 면에서 아파트가 베트남 지역에서 보편적인 주택 유형이 되기에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IV. 결과해석 및 논의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조사대상자인 주부의 연령 분포는 30세-39세, 40-49세, 50-59세가 각각 5사례(25.0%)씩이었으며 60-69세가 4사례(20.0%) 그리고 70대가 한 사례(5.0%)가 있었다. 주부의 평균 연령은 49.8세였으며 주부의 직업은 사업과 전문직, 공무원과 회사원 등으로 다양하였다. 평균 가족수는 4.6명이었고 가족 형태는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경우가 6사례(30.0%)로 가장 많았고 전체에서 9사례(45.0%)가 3세대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주부의 학력은 전문대 졸업 이상인 경우와 중학교를 졸업한 경우가 각각 7사례(35.0%)씩이었고 고등학교 졸업이 6사례(30.0%)이었다. 남편의 직업은 퇴직한 경우(6사례:31.6%) 외에는 전문직, 기술직, 사무직, 사업 등이 각각 3사례(15.8%)씩이었다. 조사대상자의 소득 정도는 홍이엔 지역의 경우 월 평균 390만 동이었으며 하노이 지역의 경우 월 평균 780만 동이었다. 홍

12) 1990년대 중반 이후 나용이 밀집되어 있는 '36거리 지구'에 대한 도시보전 차원의 논의가 진행되면서 나용의 전면부는 3층 12미터, 후면부는 4층 16미터라는 고도제한 지침이 적용되고 있다. 상업과 수공업의 거리인 '36거리 지구'는 2004년 4월에 국가역사유적으로 지정되었으며, 2010년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전봉희, 이경아, 주상훈, 2006).

13) Vu Van The(31세)는 하노이 현지의 한국 건설업체인 E 건설회사에서 건축가로 일하고 있으며 건축 설계 분야의 매니저이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지역	번 호	주부 이름	나이	가족 구성	가족 수	주부 학력	남편 직업	주부 직업	월 소득 (만동) ¹⁴⁾	주택 형태	침실 수	주택 소유 여부	건축 경과 년수	거주 년수
홍이엔	1	L택	66	부부	2	중졸	퇴직	퇴직	400	단층주택	1개	소유	80년	45년
	2	L택	47	부부	2	고졸	농사	농사	100	3층주택	4개	소유	1년	20년
	3	T택	51	부부+자녀2명	4	중졸	은행원	공무원	600	3층주택	5개	소유	1년	20년
	4	T택	37	부부+자녀2명	4	고졸	회사원	재봉사	400	2층주택	2개	소유	10년	10년
	5	N택	50	부부+부모님	4	중졸	교수	주부	350	3층주택	4개	소유	10년	20년
	6	X택	47	부부+아들부부+손자	5	고졸	농사	공무원	400	단층주택	1개	소유	8년	34년
	7	P택	55	부부+아들부부+손자	5	초졸	건축기사	농사	200	단층주택	1개	소유	30년	34년
	8	H택	58	부부+아들부부+손자	5	전문대	퇴직	장사	500	단층주택	1개	소유	34년	25년
	9	B택	63	부부+아들부부+손자	5	중졸	퇴직	주부	400	2층주택	4개	소유	1년	16년
	10	T택	68	부부+손녀4명	6	중졸	퇴직	퇴직	550	3층주택	5개	소유	4년	4년
하노이	11	T택	38	주부+자녀2명	3	고졸	외국근로자	주부	800	4층주택	4개	소유	10	1년
	12	T택	37	부부+자녀1명+조카	4	중졸	회사원	사무직	800	3층주택	2개	소유	1년	1년
	13	H택	32	부부+자녀2명+동생	4	대졸	사업	사업	800	2층주택	2개	소유	20	6년
	14	L택	33	부부+자녀2명	4	전문대	버스기사	가정부	600	2층주택	2개	소유	20년	20년
	15	M택	53	부부+자녀2명	4	전문대	퇴직	회사원	800	2층주택	2개	소유	100년	30년
	16	K택	41	부부+자녀2명+할머니	5	대졸	의사	교수	600	4층주택	4개	소유	4년	25년
	17	H택	44	부부+자녀2명+할머니	5	고졸	기술자	가정부	800	3층주택	2개	소유	40년	21년
	18	M택	40	부부+자녀2명+할머니	5	대졸	기자	기자	1,000	4층주택	5개	소유	100년	10년
	19	D택	61	부부+아들부부+손녀, 조카	6	고졸	퇴직	퇴직	800	4층주택	5개	소유	51년	58년
	20	B택	74	주부+딸부부(2)+손자4명	9	중졸	·	퇴직	800	5층주택	4개	소유	6년	35년

주. 조사대상자의 이름은 개인 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영문 약자로 표기하였음.

주. 거주년수는 현재 거주하는 주택을 짓기 이전부터 주부가 해당 주택 터에 살아온 햇수를 포함함. 즉,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주택에 거주하다가 신축한 경우, 거주년수가 건축경과 년수보다 길수 있음.

주. 침실 수는 거실에 침대를 두고 취침하는 경우를 제외한 순수한 침실 수로 산정하였음.

이엔 지역의 평균 월수입이 약 130만 동 그리고 하노이 지역의 평균 월수입이 약 250만 동임을 감안할 때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들은 중간 이상의 소득계층인 것으로 파악되었다.¹⁵⁾

조사대상자의 주택 형태는 모두 단독주택이었으며 조사 대상자들 모두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단독주택의 유형은 3층 주택이 6사례(30.0%)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2층 주택(5 사례:25.0%), 단층 주택(4사례:20.0%), 4층 주택(4사례:20.0%) 그리고 5층 주택(1사례:5.0%)의 순이었다. 침실 수는 2개인 경우와 4개인 경우가 각각 6사례(30.0%)씩 이었으며 1개인 경우와 5개인 경우가 각각 4사례(20.0%)씩 이었다. 단독주택의 경우에 3사례(15.0%) 외에는 모두(17사례:85.0%) 조부모 이상의 세대 혹은 조사대상자가 주택을 건축한 경우였다. 주택의 건축 경과년수는 평균 26.6년이었으며 거주년수는 평균 21.8년이었다.

2. 주거공간 사용

1) 주거 공간의 유형 및 평가

조사대상 주택의 거실, 식사실, 부엌의 연결 유형은 표 2

와 같이 분류되었다. 홍이엔과 하노이의 두 지역 모두 부엌에서 신발을 신는 경우와 벗는 경우가 절반씩이었으므로 두 지역에서 부엌에서 신발을 신는 유형과 벗는 유형으로 각각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홍이엔 지역의 경우 부엌에서 신발을 벗는 유형에서는 거실이 따로 있고 부엌과 식사실이 함께 있는 유형(L+D·K)이 4사례(40.0%)로 가장 많았으며

14) 베트남의 화폐 단위는 동(dong)으로 10,000동이 우리나라 돈으로 약 1,000원에 해당한다.

15) 2008년에 베트남인들의 평균 연소득은 1,024\$(월85\$:약 170만 동)이었다(http://dantri.com.vn/c20). 조사대상 지역인 홍이엔 지역의 평균 연소득은 800\$(월67\$:약 130만동)이었으며, 하노이 지역의 평균 연소득은 1,500\$(월 125\$:약 250만동)로 파악되었다(http://www.hungyen.gov.vn). 그러나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베트남의 경우도 맞벌이가 일상화되어 있고 보통 일인당 두 가지 이상의 소득원이 있어 가구당 실질 소득은 이보다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두 가지 이상의 일을 하는 것은 관리직, 전문직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는 점차 상승하고 있는 베트남의 소비 수준을 따라가기 위한 방편으로 분석된다. 이런 점에서 베트남의 공식적인 경제 통계는 실질적으로 큰 의미가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http://cafe.daum.net/youtongin/fZv/173).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들도 소득원과 소득 수준에 대하여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응답하였다.

〈표 2〉 거실, 식사실, 부엌의 연결유형 및 만족정도

N = 20

지역	유형	f(%)	만족정도
흥이엔	부엌에서 신발 벗는 경우	L+D·K	4(40.0)
		L·D·K	1(10.0)
	부엌에서 신발 신는 경우	L+D·K	2(20.0)
		L+D+K	2(20.0)
		K+L·D	1(10.0)
계	10(100.0)		
하노이	부엌에서 신발 벗는 경우	K+L·D	1(10.0)
		L·D·K	2(20.0)
	부엌에서 신발 신는 경우	L+D·K	1(10.0)
		K+L·D	6(60.0)
		계	10(100.0)

주. L+D·K : 거실이 독립되어 있고 부엌과 식사실이 함께 있는 형태
 K+L·D : 부엌에 독립되어 있고 거실과 식사실이 함께 있는 형태
 L·D·K : 거실, 식사실, 부엌이 함께 있는 형태
 L+D+K : 거실, 식사실, 부엌이 각각 독립되어 있는 형태

그 만족정도는 평균 4.5점으로 높았다. 부엌에서 신발을 신는 유형에서는 거실이 따로 있고 부엌과 식사실이 함께 있는 유형(L+D·K)과 거실, 부엌, 식사실이 모두 분리되어 있는 유형(L+D+K)이 각각 2사례(20.0%)씩이었는데 이에 대한 만족 정도는 두 경우 모두 평균 3.0점으로 보통으로 평가되었다(사진 5). 다음으로 하노이 지역에서는 부엌에서 신발을 벗는 유형의 경우 거실과 부엌, 식사실이 모두 한 공간에 있는 유형(L·D·K)이 2사례(20.0%)로 가장 많았으며 이에 대한 만족정도는 평균 4.5점으로 높게 평가되었다. 부엌에서 신발을 신는 유형은 모두 부엌이 따로 있고 거실과 식사실이 함께 있는 유형(K+L·D:60.0%)이었고 이에 대한 만족정도는 평균 2.3점으로 낮았다. 부엌에서 신발을 신는 유형의 부엌 면적은 흥이엔 지역의 경우 평균 23.2m²이며, 하노이 지역의 경우 평균 7.7m²로 차이가 있으나 이 유형에 대한 만족 정도는 흥이엔이 평균 2.8점 그리고 하노이 지역이 평균 2.3점 씩으로 모두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즉, 이 유형에 대한 만족 정도가 낮은 것은 부엌 면적의 협소함 이외에 출입 때마다 신발을 신고 벗어야 하는 등 생활에서의 불편함에 의거한 것으로 사료되었다. 부엌에서 신발을 벗는 유형에 대한 만족 정도가 흥이엔과 하노이 모두 높았던 것에 비하여 부엌에서 신발을 신는 유형에 대한 만족 정도가 두 지역 모두 낮았던 것은 앞으로의 부엌 계획에 변화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한편, 흥이엔 지역에서 부엌에 문이 없는 경우는 6사례(60.0%)였으며 하노이 지역에서는 5사례(50.0%)가 부엌에 문이 없었다. 흥이엔 지역에서 8사례(80.0%)가 부엌문이 필요하다고 한 반면 하노이 지역에서는 7사례(70.0%)가 부엌문이 없어도 된다고 답함으로써 하노이 지역에 거주하는 조사대상자들의 개방된 부엌에 대한 선호 정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사료되었다(사진 6).

선행연구에서 재한(在韓) 베트남인의 경우 부엌과 침실 1개로 구성된 유형에서 거주하는 사례가 81.8%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주거 공간 유형에 대한 만족 정도는 거실, 식사실, 부엌이 한 공간에 통합되어 있는 형태에서 가장 높았으며 조사대상자들의 반 수(45.5%) 정도가 부엌에 문이 없어도



〈사진 5〉 별채로 분리된 부엌과 지하수 저장탱크 (흥이엔:N씨택)



〈사진 6〉 부엌과 거실, 침실 사이에 문이 없는 유형 (흥이엔:T씨택)

좋다고 응답하였다(이영심, 최정신, 2009).¹⁶⁾ 즉, 이러한 배경에서 베트남인을 위한 주거 공간 계획은 부엌을 거실, 식사실과 가깝게 계획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이때 베트남인에게 중요한 공간인 거실과 부엌과의 분리 방안을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하는데 이들의 부엌문에 대한 요구 정도가 중간 정도인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뚜렷한 분리형 혹은 통합형보다는 간벽(間壁) 등을 사용하여 두 가지의 유형을 조절하는 방안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2) 부엌에 대한 평가 및 요구

부엌에 대한 만족 정도는 흥이엔 지역은 평균 3.4점, 하노이 지역은 평균 3.0점으로 보통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부엌의 면적에 대한 만족 정도는 흥이엔 지역이 3.4점 그리고 하노이 지역이 2.5점으로 하노이 지역의 만족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는 흥이엔 지역의 부엌 면적이 평균 17.4m², 하노이 지역의 부엌 면적이 평균 8.0m²인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부엌에서의 불편한 점으로 면적의 협소함을 든 11사례(55.0%) 중 하노이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가 8사례(72.7%)였던 결과 역시 이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나 두 지역 모두 공통으로 신발을 벗는 유형에 대한 만족 정도가 높았고 신발을 신는 유형에 대한 만족 정도가 낮게 평가됨으로써 앞으로 쾌적성과 효율성을 고려한 변화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전체 조사대상자들의 95.0%(19사례)가 베트남 김치(즈무이)를 담그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이들 중 60.0%(12사례)가 부엌에 서서 혹은 앉아서 만드는 것으로 파악됨으로써 이들의 부엌 면적에 대한 요구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냉장고는 전체의 95.0%(19사례)가 보유하고 있었으며 65.0%(13사례)가 부엌에 두고 있었다.¹⁷⁾ 흥이엔과 하노이의 두 지역 모두 아직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지 않아 모든 주택이 프로판 가스를 사용하고 있으며 전기온수기를 사용하는 10사례(50.0%)를 제외하고는 물을 끓여서 사용하고 있다.¹⁸⁾

선행연구에서 재한 베트남인의 부엌에 대한 만족 정도 역시 평균 3.1점으로 보통의 수준이었으며 이들 역시 부엌에서의 불편한 점으로 면적의 협소함을 든 바 있다. 재한 베트남인들 역시 베트남 김치 혹은 한국 김치를 부엌에 앉아서 혹은 서서 만드는 것으로 파악됨으로써 부엌에 대하여 협소함을 느끼는 정도는 식생활 문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이영심, 최정신, 2009).¹⁹⁾

3) 욕실에 대한 평가 및 요구

조사대상 지역인 흥이엔과 하노이의 욕실 개수 및 욕실 설비의 구성은 표 3과 같다. 조사대상 지역은 전통적으로 화장실은 본채와 떨어져 있으며 욕실 역시 마당의 우물가에 벽

돌로 만든 샤워실의 형태가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조사대상 주택에서 욕실이 별채로 있는 경우는 흥이엔 지역에서 2사례(10.0%)가 있었을 뿐 나머지는 모두 본채에 계획되어 있었다. 흥이엔 지역에서 욕실의 개수는 1개에서 3개까지였으며 2개인 경우가 5사례(50.0%)로 가장 많았다. 흥이엔 지역의 조사대상 주택에서 욕실이 1개인 경우 가장 많았던 형태는 변기와 세면대를 각각 1실로 분리한 경우(3사례:30.0%)였고 욕실이 2개인 경우에 많았던 형태는 변기와 세면대를 1실에 함께 구성한 형태가 2개 있는 경우(30.0%)였다(사진 7)(사진 8). 한편, 하노이 지역의 조사대상 주택에서의 욕실 개수는 1개에서 4개까지 분포되어 있었는데 욕실이 4개인 1사례(10.0%)를 제외하고는 모두 3사례(30.0%)씩 분포되어 있었다. 흥이엔 지역의 조사대상 주택들에 비하여 하노이 지역의 경우에 상대적으로 욕실 설비의 구성이 다양하였는데 이는 도시 지역인 하노이의 경우 조사대상 주택의 층수(層數)가 상대적으로 다양하며 일반적으로 각 층마다 욕실을 계획하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²⁰⁾ 조사대상 주택 중 단층주택은 흥이엔 지역에 4사례(20.0%)가 있었는데 이를 제외한 다층 주택 16사례(80.0%) 중 14사례(87.5%)가 2개 이상의 욕실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욕조가 있는 경우는 흥이엔 지역에서 2사례(10.0%)를 볼 수 있었는데 그 사용 정도는 매우 낮았다. 그러나 앞으로의 욕조 계획에 대해서는 흥이엔 지역에서 6사례(60.0%) 그리고 하노이 지역에서 4사례(40.0%)가 “사용하고 싶다”고 응답함으로써 욕조의 소유는 현재의 경제 상황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욕실에서의 온수 사용은 흥이엔 지역의 경우 8사례(80.0%) 그리고 하노이 지역의 경우 모든 조사대상 주택이 전기온수기를 사용하고 있었다. 욕실에 대한 만족 정도는 흥이엔 지역이 평균 3.6점 그리고 하노이 지역이 평균 3.0점으로 보통으로 평가되었다.

한편, 재한 베트남인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 내에 욕실이 없고 공동 화장실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일부 있었으며 욕

16) 재한 베트남인의 주거 공간 유형은 독립된 부엌과 방 1개-4개로 구성된 경우가 18사례(81.8%)로 가장 많았으며 부엌, 거실, 식사실이 한 공간에 통합된 경우의 만족 정도가 평균 3.3점으로 가장 높았다. 또한 재한 베트남인들의 45.5%(10사례)가 부엌에 문이 없어도 좋다고 응답하였다(이영심, 최정신, 2009).

17) 흥이엔 지역의 경우 6사례(60.0%), 하노이 지역의 경우 7사례(70.0%)가 냉장고를 부엌에 두고 있었다.

18) 부엌에서 전기온수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흥이엔 지역과 하노이 지역이 각각 5사례(50.0%)씩이었다.

19) 재한 베트남인 주택의 부엌 면적은 평균 1.5m X 2.8m로 대부분이 부엌에서의 활동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다(이영심, 최정신, 2009).

20) 흥이엔 지역의 조사대상 주택의 층수가 평균 2.0층인데 비하여 하노이 지역의 경우는 평균 3.3층이었다.

〈표 3〉 조사대상 주택의 욕실 공간 계획

N = 20

지역	욕실갯수	욕실 설비의 구성	f(%)	
홍이엔	1개	변기1실 +세면대1실	3(30.0)	4(40.0)
		변기, 세면대 1실	1(10.0)	
	2개	변기, 세면대1실 2개	3(30.0)	5(50.0)
		변기1실+욕조, 세면대1실/ 변기, 샤워기 1실	1(10.0)	
		변기1실+세면대1실/변기, 세면대 1실	1(10.0)	
		변기1실 + 세면대1실/ 변기1실 +욕조, 세면대1실/ 변기, 세면대 1실	1(10.0)	
계 10(100.0)				
하노이	1개	변기, 세면대 1실	1(10.0)	3(30.0)
		변기, 샤워기 1실	1(10.0)	
		변기1실+샤워실1실	1(10.0)	
	2개	변기1실+세면대1실 2개	1(10.0)	3(30.0)
		변기, 세면대, 샤워부스1실/ 변기, 세면대 1실	1(10.0)	
		변기, 샤워기 1실 2개	1(10.0)	
	3개	변기, 세면대 1실 3개	2(20.0)	3(30.0)
		변기1실 + 세면대 1실/ 변기, 세면대 1실 2개	1(10.0)	
	4개	변기, 세면대 1실 4개	1(10.0)	1(10.0)
	계 10(100.0)			

실 설비는 변기와 수도로만 이루어진 경우가 가장 많았다.²¹⁾ 연구 결과, 베트남에서 특히 다층 주택의 경우 각 층마다 욕실을 두는 것과 비교할 때 욕실 사용 면에서 재한 베트남인들의 불편함이 클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었다. 욕조에 대해서는 재한 베트남인들의 31.8% 그리고 베트남 현지 조사대상자의 반수가 앞으로의 필요성에 대하여 언급하였는데 덥고 습한 환경으로 인하여 자주 간편하게 씻는 방식이 관습화된 이들에게 욕조의 실용성은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따라서 욕실 계획 시 욕조는 필수적이지 않은 설비로 사료되었다.²²⁾



〈사진 7〉 욕실과 화장실이 한 공간에 있는 형태 (하노이:K씨택)



〈사진 8〉 욕실과 화장실을 분리한 형태(홍이엔:T씨택)

4) 세탁 공간에 대한 평가 및 요구

홍이엔 지역의 경우 5사례(50.0%)만이 세탁기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하노이 지역의 경우는 모두 세탁기를 가지고 있었다. 세탁기의 사용 장소는 홍이엔 지역의 경우 욕실에 두

고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야외 빨래터에 두고 사용하는 경우가 각각 2사례(40.0%)씩이었으며 한 사례(20.0%)는 욕실 옆에 두고 사용하고 있었다. 하노이 지역의 경우 욕실 옆에 둔 경우가 4사례(40.0%)로 가장 많았고 욕상의 빨래터에 둔 경우와 부엌에 둔 경우가 각각 2사례(20.0%)씩이었으며 그 외는 욕실 내에 둔 경우와 베란다에 둔 경우가 각각 1사례(10.0%)씩이었다(사진 9)〈사진 10〉. 세탁기의 사용 기간은 홍이엔 지역의 경우 평균 4.0년, 하노이 지역의 경우 평균 5.0년으로 점차 세탁기의 보유율이 높아지고 있기는 하나 아직까지는 조사대상 지역에서 보편적이지 않은 기기로 파악되었다.²³⁾

조사대상자들이 선호하는 세탁기의 위치는 홍이엔과 하노이 모두 욕실이나 화장실 옆 혹은 별도의 세탁 공간에 두기를 원하는 경우가 각각 8사례(70.0%)씩이었다. 세탁기를

21) 재한 베트남인의 주택은 주택 내에 욕실이 있는 경우가 16사례(72.7%)였고 6사례(27.3%)는 공동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었다. 욕실 설비는 변기와 수도로 구성된 경우가 10사례(62.5%)로 가장 많았으며, 세면대, 변기, 욕조가 한 실에 있는 배스 유닛(bath unit)은 3사례(13.6%)로 욕조가 있는 경우는 전체에서 3사례(13.6%)였다(이영심, 최정신, 2009).

22) 재한 베트남인의 원 거주지의 욕실은 1개 혹은 2개의 배스 유닛과 기타 설비 등으로 구성된 경우가 36.4%(8사례)로 이들은 모두 욕조를 사용한 경험이 있었다. 그러나 이들 중 욕조가 꼭 있어야 한다는 경우는 4사례에 불과하였고 욕조의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전체에서 7사례(31.8%)만이 욕조가 꼭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이영심, 최정신, 2009).

23) 홍이엔 지역에 거주하는 조사대상자들은 해당 지역의 세탁기 보유율에 대하여 1/10 -5/10 정도로 언급하였다.

욕실 안에 두기를 원하는 경우는 두 지역 모두 2사례(20.0%) 씩으로 그 선호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는데 이는 물기와 습기 등으로 인한 기기 손상의 우려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현재 주택 내에 별도의 세탁 공간을 둔 경우는 홍이엔 지역에서 마당에 빨래터를 만든 사례(2사례:40.0%)와 하노이 지역에서 다층주택의 옥상과 베란다를 활용한 사례(3사례:60.0%)가 있었는데 독립적인 세탁 공간이 있는 경우 세탁기의 사용을 포함한 제반 세탁 작업을 편하게 할 수 있으므로 가장 이상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조사대상자들의 80.0%(16사례)가 2, 3층 이상의 주택을 선호하는 데에는 침실을 여유 있게 사용할 수 있다는 이유 이외에 여유 있는 세탁 공간에 대한 계획 역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세탁기의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현재 손빨래를 하는 경우가 70.0%(14사례)였는데 이들 중 50.0%(7사례)가 욕실 내에서 손빨래를 하고 있었고 전체의 75.0%(15사례)가 욕실 내에서 세숫대야를 사용하고 있었다. 빨래 삶기는 전체에서 8사례(40.0%)가 하고 있었는데 이는 빨래감을 직접 가열하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물에 담가두어 살균 소독하는 것으로 우리의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



〈사진 9〉 욕실 옆에 세탁기 사용 공간을 마련한 예 (하노이:T씨택)



〈사진 10〉 옥상에 세탁기와 손세탁 공간을 마련한 예(하노이:T씨택)

선행연구에서는 재한 베트남인의 대부분(95.5%)이 세탁기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그 장소는 욕실, 부엌, 베란다 등으로 다양하였다.(이영심, 최정신, 2009)²⁴⁾ 재한 베트남인들의 경우 욕실에 세탁기를 둘 공간의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부엌이나 마당에 두고 사용하여야 하므로 물을 사용하기 편한 욕실에 세탁기를 두는 것이 현재의 상황에서 가장 좋은 조건일 것이다. 그러나 이들 중 아파트 혹은 다세대 주택의 베란다에서 현재 세탁기를 사용하고 있거나 혹은 아파트에 거주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베란다가 가장 좋은 장소로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²⁵⁾ 이러한 결과에서 세탁기 사용 장소로서 욕실은 양쪽 지역에서 모두 차선의 방안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독립적인 세탁 공간에 대한 선호 정도가 가장 높은 것

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세탁 공간에는 손빨래를 할 수 있는 설비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었다.

5) 주택 개조의 내용과 요구

홍이엔 지역의 경우 개조(改造)를 한 경우는 4사례(30.0%)였으며 증축(增築)이 2사례(20.0%) 그리고 기존의 주택을 허물고 신축을 한 경우가 5사례(50.0%)로 파악되었다. 하노이 지역의 경우는 개조가 2사례(20.0%), 증축이 1사례(10.0%), 그리고 신축이 3사례(30.0%)였다(〈사진 11〉〈사진 12〉). 개조의 내용은 홍이엔 지역의 경우 부엌과 욕실, 화장실 등을 내부에 계획하기, 지붕을 높이기, 공간을 덧붙이거나 분할함으로써 침실을 추가하기 등의 내용이었으며 하노이 지역은 공간을 분할하여 침실을 추가하는 개조를 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기존의 주택에 증축을 함으로써 변화한 것은 홍이엔 지역의 경우 부엌이 주택 내부로 들어오면서 그 면적이 더 커지고 욕실과 화장실의 개수가 증가한 것이며 하노이 지역의 경우는 거실 면적이 커지고 침실 수가 많아진 것 등이다. 주택을 신축한 총 8사례(40.0%) 중 기존의 주택을 허물고 그 자리에 신축(新築)한 경우가 7사례(87.5%)였다.²⁶⁾ 조사대상 지역에서는 조상으로부터 주택 혹은 택지를 물려받은 것이 일반적이는데 본 연구에서 주택 혹은 택지를 물려받은 경우는 홍이엔 지역의 경우 9사례(90.0%), 하노이 지역의 경우 7사례(70.0%)로 총 16사례(80.0%)이며 이 중 한 사례 외에는 부분적인 개조를 하거나(6사례:37.5%), 증축(3사례:18.8사례%) 혹은 신축(6사례:37.5%)을 하면서 거주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²⁷⁾

조사대상자들이 주택을 개조하거나 증축, 신축함으로써 얻은 가장 큰 변화는 외부에 있었던 부엌, 욕실, 화장실 등을 주택 내부에서 사용하게 된 점 그리고 거실이 침실을 겸하던 것에서 독립적인 거실로 사용하게 된 점 등이다. 이는 조사

24) 세탁기를 부엌에 둔 경우는 주택 내에 욕실 공간이 없는 경우였으며, 마당에 둔 경우는 부엌과 욕실 공간이 좁기 때문이었다. 조사대상자들 중 손빨래를 하는 경우는 59.0%(13사례)였다(이영심, 최정신, 2009).

25) 재한 베트남인은 세탁기의 이상적인 위치로 68.2%(15사례)가 욕실, 7사례(31.8%)가 베란다가 언급하였는데 베란다가 언급한 7사례 중 6사례는 아파트 혹은 다세대 주택의 베란다에서 현재 세탁기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였으며 1사례는 아파트에 거주한 경험이 있는 경우였다(이영심, 최정신, 2009).

26) 홍이엔 지역의 경우 한 사례는 직접 토지를 구입하여 주택을 신축한 경우였다.

27) 조사대상 지역에는 장남이 부모의 집을 물려받아 3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형제가 많은 경우에는 택지를 분할(分割)하여 여러 채의 주택을 짓는데 모든 주택이 길에 면하도록 하기 위하여 앞면이 좁고 뒤가 긴 나옹식 주택을 짓기도 한다. 간혹 두 형제가 함께 사는 주택을 짓기도 하는데 최근에는 각자의 택지를 매각하여 고향을 떠나 타 지역에 거주하는 사례도 많다.

대상 지역의 전통적인 주택 형태인 거실과 1, 2칸의 방으로 이루어진 본채 그리고 부엌, 샤워실, 화장실 등으로 이루어진 별채의 구성 면에서의 변화이며 단층(單層)에서 다층(多層)으로 올라감에 따른 주공간의 개수 면에서의 변화이기도 하다. 그러나 흥이엔 지역의 경우에는 주택을 개조한 4사레 모두 거실에 평균 2개의 침대를 두고 있는 등 여전히 거실과 침실을 겸하고 있었다. 흥이엔 지역에서는 주택을 신축한 경우에도 거실과 침실의 기능을 겸하고 있는 경우(2사레: 40.0%)를 볼 수 있었는데 거실의 간벽 뒤에 침대를 놓고 사용하거나 거실 가운데에 장식장을 두어 침실 공간을 마련한 경우 등이었다. 이는 거실과 침실의 기능이 한 공간에서 이루어져 온 조사대상 지역의 전통적인 주생활 양식에 근간(根幹)을 둔 것으로 흥이엔과 같은 농촌 지역에서 관습이 지속되고 있는 사례로서 볼 수 있을 것이다.



〈사진 11〉 기존의 별채(오른쪽:부엌) 옆에 본채(왼쪽)를 신축한 모습(흥이엔:T씨덕)



〈사진 12〉 기존의 본채(오른쪽)옆에 나옴식 주택을 신축한 모습(흥이엔:N씨덕)

3. 주생활

1) 주공간 별 주생활

조사대상 주택의 형태는 모두 단독주택이었는데 이 중 단층주택이 4사레(20.0%)였고 2층 이상의 다층주택이 16사레(80.0%)였다. 조사대상자들이 선호하는 주택 형태 역시 80.0%(16사레)가 다층주택이었는데 그 이유는 무더운 기후

에서 높은 주택이 통풍이 잘 되며 다층주택의 경우 단층 주택에 비하여 침실을 많이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다층 주택 중에서도 특히 2층 주택(40.0%:8사레)을 선호하는 경우가 3, 4층 주택(40.0%:8사레)보다 약간 더 많았는데 이는 계단 사용으로 인한 불편함과 관계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각 층에 침실이 있는 다층주택 14사레 중 부부침실을 1층에 둔 경우가 7사레(50.0%) 그리고 1층에 침실이 없는 경우에 2층에 부부침실을 둔 경우가 3사레(21.4%)로 조사대상자들은 충분한 침실 수 뿐 아니라 편리한 주생활에 대한 요구 또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조사대상 주택 중 거실과 침실을 겸하는 경우는 전체에서 10사레(50.0%)였는데 이들 모두 거실을 부부침실로 사용하고 있었다.

조사대상 지역에서 거실은 복합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 거실의 기능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제단(祭壇)을 두어 조상을 기리는 것으로 모든 조사대상 주택이 주택 내에 제단을 두고 있었다.²⁸⁾ 선행연구에서는 재한 베트남인의 27.3%가 침실이나 거실의 한쪽에 제단을 두어 원 거주지에서의 관습을 유지하는 것으로 파악된 바 있다(이영심, 최정신, 2009). 전통적으로 제단은 주택의 가운데인 1층 거실에 두는데 다층주택의 경우에는 2층 혹은 3, 4층 등 해당 주택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조사대상 주택에서 다층주택 16사레 중 주택에서 가장 높은 층에 제단을 둔 경우가 11사레(68.8%)였으며 이 중 7사레(63.6%)는 주택의 맨 위층에 제단실(祭壇室)을 별도로 만든 것을 볼 수 있었다.

조사대상자들의 주 공간별 주생활 내용은 표 4와 같다. 조사대상자들이 거실에서 하는 주요 활동은 가족단란(20사레:100.0%)과 손님접대(20사레:100.0%), TV시청(16사레:80.0%) 등이었으며 이 외에 가족식사(14사레:70.0%)와 대가족 식사(20사레:100.0%)가 거실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조사대상 지역에서 전통적인 가족식은 음식을 담은 큰쟁반을 가족의 중심 공간인 거실의 바닥에 놓고 가족 혹은 손님들이 그 주변에 둘러앉아 먹는 좌식으로 이루어진다. 최근 식탁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나 많은 가족원이 함께 식사할 경우 혹은 많은 손님들을 접대할 경우에는 좌식의 식사가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선행연구에서도 재한 베트남인의 54.5%가 원 거주지에서 좌식으로 식사를 한 것으로 파악된 바 있는데 이로 미루어 바닥에서의 좌식 식사

28) 베트남에서 주택 내에 차려놓은 제단은 조상에 대한 예를 표하기 위한 것으로 전통적으로 설날, 음력 매월 초하루와 보름마다 5종류의 과일,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과자, 꽃 등을 올리고 조상에 대한 예를 지킨다. 조사대상 지역에는 그 규모와 위치에 차이는 있으나 모든 주택이 이 제단을 가지고 있었다. 제단 위에는 돌아가신 조상의 사진을 두는데 베트남의 지도자였던 호치민의 사진을 함께 둔 경우도 종종 있었다.

는 조사대상 지역의 식생활 관습인 것으로 분석되었다(이영심, 최정신, 2009). 거실에서의 취침 역시 조사대상 지역의 특징적인 주생활 양식이라 할 수 있는데 거실과 방 1칸으로 구성된 주거에 3세대 가족이 거주할 경우 부모 세대는 거실에서, 손녀 세대는 그 옆방에서 취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근 경제적인 여건이 향상되면서 개조 혹은 증축 등을 통하여 주생활 공간이 기능별로 분리되고 있는데 조사대상 주택의 거실이 가지고 있는 다목적 공간으로서의 전통적인 기능은 우리나라의 안방이 가지고 있는 기능과도 유사한 것으로 사료되었다. 부엌에서 가족 식사를 하는 경우는 부엌에 식탁을 둔 경우였으며 이 경우에도 대가족의 식사는 바닥에서의 좌식 식사를 병행하고 있었다. 부부 침실이 독립되어 있는 경우는 전체에서 10사례(50.0%)였는데 부부침실에서는 취침 이외에 다림질과 독서 등을 하고 있었다. 전체에서 한 사례 외에는 모두 자녀침실이 있었으며 여기서는 자녀공부와 독서 그리고 손님 취침을 하고 있었다.

〈표 4〉 주공간 별 주생활 내용 N = 20

주생활내용 \ 주거공간	거실 f(%)	부엌 (식사실) f(%)	부부침실 f(%)	자녀침실 f(%)
취침	10(50.0)	1(5.0)	10(50.0)	20(100.0)
손님취침	7(35.0)	2(10.0)	1(5.0)	12(60.0)
가족단란	20(100.0)	8(40.0)		
가족식사	14(70.0)	11(55.0)	1(5.0)	
대가족식사	20(100.0)	12(60.0)	1(5.0)	1(5.0)
자녀공부	3(15.0)	1(5.0)		1(5.0)
다림질	7(35.0)		8(40.0)	2(10.0)
재봉	9(45.0)		5(25.0)	2(10.0)
독서	13(65.0)		7(35.0)	8(40.0)
손님접대	20(100.0)			
TV시청	16(80.0)	2(10.0)	3(15.0)	

주. 부부침실과 자녀침실은 해당 공간이 있는 사례만 분석하였으며 해당 주생활을 하지 않거나 응답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함.

2) 주생활 내용별 입식과 좌식의 정도

조사대상자들의 주생활에서 입식과 좌식 정도는 표 5와 같이 분석되었다. 가족 취침은 조사대상자들 중 18사례(90.0%)가 침대를 사용하는 등 입식 성향이 강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손님 취침 역시 전체에서 13사례(65.0%)가 침대를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조사대상 지역에서의 취침은 침대의 사용이 일반적임을 알 수 있었다(사진 13). 가족 식사는 60.0%(12사례)가 식탁을 사용하고 있었으나 가족원의 수가 많거나 손님들이 많은 경우에는 바닥에 앉아 식사하는 경우가 75.0%(15사례) 그리고 식탁과 바닥을 겸용하는 경우가 20.0%(4사례)로 인원이 많을수록 좌식 성향이 뚜렷해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사진 14). 바닥에서의 식사는 벵농사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 문화에 근원을 둔 것으로서 이는 제한된 공간에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이기도 하다. 가족 단란은 가족들이 모이는 중심 공간인 거실에서 소파 혹은 의자와 테이블을 사용한 입식(17사례:85.0%)으로 하고 있었으며 TV 시청 역시 대부분이 거실에서 입식(18사례:90.0%)으로 하고 있었다. 이 외에 자녀공부는 책상 혹은 테이블에서(12사례:92.3%) 그리고 독서(17사례:85.0%)와 재봉(11사례:84.6%) 역시 소파 혹은 탁자 등에서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가사활동 중 다림질은 테이블 혹은 침대에서 입식으로 하는 경우(7사례:46.7%)가 바닥에서 하는 경우(5사례:33.3%)보다 약간 더 많았으나 입식과 좌식을 겸용하는 경우도 3사례(20.0%)가 있는 등 다림질은 입식과 좌식이 혼용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손세탁의 경우는 뚜렷하게 좌식인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조사대상자들은 욕실(12사례:80.0%), 마당 혹은 옥상(3사례:20.0%) 등에 앉아서 손세탁을 하고 있었다. 조사대상자들의 대부분(19사례:95.0%)이 하고 있는 김치 담그기는 좌식인 경우(11사례:55.0%)가 입식인 경우(8사례:40.0%)보다 약간 더 많았는데 부엌(13사례:68.4%) 혹은 마당(6사례:31.6%)에서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조사대상자들의 주생활별 입식과 좌식의 정도를 분석한 결과 취침과 가족식사, 손님접대 등의 기본적인 주생활은 침대와 소파, 식탁 등을 사용하는 입식 위주였으나 대가족 식사나 손세탁은 뚜렷한 좌식 위주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식생활에서의 좌식 문화는 오랫동안 지켜 온 관습으로 앞으로도 식탁의 사용과 병행하여 지속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사료되었다. 선행연구에서 재한 베트남인들의 72.7%가 침대를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침실이 1개인 경우(45.5%)에도 80.0%의 경우가 침대를 사용하고 있어 이들의 생활에서 입식 취침의 관습이 매우 강하게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가족식사나 손님과의 식사는 거의 대부분이 바닥에서 좌식으로 식사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²⁹⁾ 원 거주지에서 주로 입식으로 하고 있는 화장과 다림질, 독서 등이 우리나라에서 좌식으로 하는 것으로 파악된 결과는 우리나라에서의 생활에 적응하기 위한 방법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손세탁과 김치 담그기는 원 거주지에서도 좌식으로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이 경우는 원 거주지에서의 생활양식이 우리나라에서의 적응을 돕는 기반이 되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29) 재한 베트남인의 72.7%(16사례)가 침대에서 취침하였으며 이들의 90.0%(20사례)가 가족원 혹은 손님들과 식사할 때 바닥에서 하고 있었다(이영심, 최정신, 2009).

〈표 5〉 주생활 내용별 입식과 좌식 정도

주생활내용	N = 20			
	기거양식	입식f(%)	좌식f(%)	겸용f(%)
가족취침		18(90.0)	·	2(10.0)
손님취침		13(65.0)	3(15.0)	4(20.0)
가족식사		12(60.0)	7(35.0)	1(5.0)
대가족(손님)식사		1(5.0)	15(75.0)	4(20.0)
가족단란		17(85.0)	2(10.0)	1(5.0)
손님접대		17(85.0)	3(15.0)	·
자녀공부		12(92.3)	1(7.7)	·
독서		17(85.0)	2(10.0)	1(5.0)
재봉		11(84.6)	2(15.4)	·
화장		17(100.0)	·	·
다림질		7(46.7)	5(33.3)	3(20.0)
손세탁		·	15(100.0)	·
김치만들기		8(40.0)	11(55.0)	·
TV시청		18(90.0)	2(10.0)	·

주. 해당 주생활을 하지 않거나 응답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함.



〈사진 13〉 거실에서의 입식 취침과 입식 손님접대 (흥이엔:D씨택)



〈사진 14〉 거실 바닥에서의 좌식 식사(흥이엔:T씨택)

3) 공간별 바닥재의 구성

조사대상 주택의 바닥재 구성은 표 6과 같다. 먼저 거실의 경우 대부분(19사례:95.0%)이 타일이었으며 침실 역시 95.0%(19사례)가 타일이었다(사진 15)(사진 16). 거실과 침실의 바닥재로 타일을 사용하는 것은 조사대상 지역의 기

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조사대상 지역과 같은 무더운 지역에서는 타일 바닥재가 시원한 촉감을 줄 뿐 아니라 주택 전체의 기온을 낮추는 효과가 있으며 우기(雨季)에 주택 바닥이 습한 환경에도 잘 견딜 수 있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조사대상자들의 타일 바닥재에 대한 만족 정도는 평균 4.0점으로 그 만족 정도가 높았다. 조사대상 지역에서 전통적인 바닥재는 자연 그대로의 흙바닥이었으며 벽돌을 생산하게 된 이후에는 주로 벽돌로 바닥을 마감하여 왔다. 이후에는 시멘트를 바닥에 바르기도 하였으며 1990년대에 중국에서 타일을 수입하게 되면서 타일을 오늘날까지 가장 보편적인 바닥재로서 사용하고 있다. 부엌의 바닥재 역시 흙바닥에서 벽돌 그리고 타일을 사용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조사대상 주택의 부엌은 80.0%(16사례)가 타일이었으며 시멘트와 벽돌인 경우가 각각 2사례(10.0%)씩이었다. 욕실의 바닥재는 모두 타일(20사례: 100.0%)로 마감되어 있었다. 조사대상 주택 중 거실과 침실에 나무 바닥재를 사용한 경우가 1사례(5.0%) 있었는데 이는 100년 전에 건축한 주택의 경우로 조사대상자는 나무 바닥재가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한 점에 매우 만족하였다. 조사대상자들의 나무 바닥재에 대한 선호 정도를 평가한 결과 침실과 거실의 바닥재를 나무로 하고 싶다는 경우가 55.0%(11사례)였으며 이들 중 36.4%(4사례)는 조사대상 지역의 바닥이 습하므로 1층은 타일 그리고 2, 3층은 나무 바닥재로 하는 것을 선호하였다. 그러나 조사대상 지역에서 나무 바닥재는 타일에 비하여 매우 비싸기 때문에 나무 바닥재의 사용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선행연구에서 재한 베트남인 주택의 침실과 거실 바닥재는 모두 비닐이었으며 욕실은 모두 타일로 마감되어 있었다. 부엌은 비닐(68.1%)과 타일(31.8%)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침실이 1개인 다가구 주택의 60.0%가 부엌에서 신발을 신는 형태였으며 타일 바닥재를 사용하고 있었다. 재한 베트남인들 중 나무 바닥재를 선호하는 경우는 22.7%로 높지 않았는데 이는 원 거주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나무 바닥재의 높은 가격 때문으로 사료되었다(이영심, 최정신, 2009).

〈표 6〉 공간별 바닥재의 구성

바닥재료	N = 20			
	거실 f(%)	침실 f(%)	부엌 f(%)	욕실 f(%)
타일	19(95.0)	19(95.0)	16(80.0)	20(100.0)
나무	1(5.0)	1(5.0)	·	·
시멘트	·	·	2(10.0)	·
벽돌	·	·	2(10.0)	·
계	(100.0)	(100.0)	(100.0)	(100.0)



〈사진 15〉 거실의 타일 바닥재 사용의 예(흥이엔:X씨택)



〈사진 16〉 침실의 타일 바닥재 사용의 예(하노이:T씨택)

4) 신발 착탈 공간의 사용

실내에서 주로 신발을 신고 생활하는 2사례(10.0%)와 신발을 신고 벗는 것을 병행하는 2사례(10.0%)를 제외하고는 대부분(16사례:80.0%)이 실내에서 신발을 벗고 생활하고 있었다. 조사대상 지역에서 타일이 일반적인 바닥재로 자리 잡은 것은 약 10여 년 전부터로 그 전에는 흙바닥 혹은 벽돌 바닥에서 생활하였으므로 실내에서 신발을 신고 생활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즉, 조사대상 주택에서의 신발 착탈은 주택 바닥재의 변화 발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북부 지역의 경우 기온이 낮은 겨울에는 바닥이 매우 차게 느껴져 슬리퍼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조사대상자들 중 실내에서 슬리퍼를 사용하는 경우는 모두 16사례(80.0%)였으며 이 중 겨울에만 사용하는 경우가 43.8%(7사례)였다.³⁰⁾

조사대상 지역에는 주택 내에 신발을 신고 벗기 위한 공간을 따로 두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조사대상 지역의 전통적인 현관의 형태는 주택 본체의 앞면에 1.0미터-1.5미터 너비의 베란다(hanh lang:하안 낭)를 만들고 이를 잇는 계단을 3단(段) 정도 두어 마당으로 내려가도록 계획하는데 주택에 따라 맨 아래 계단 혹은 맨 위 베란다에서 신발을 신고 벗는다. 계단의 재료는 타일로서 여름에는 시원한 촉감을 주므로 여름에는 대개 맨 아래의 계단에서 신발을 신고 벗는다. 또한 여름에는 거실 문을 열어 두고 베란다에 앉아 바람을 쐬거나 차를 마시며 아이들의 놀이 공간으로 활용하기도 한다(사진 17). 흥이엔 지역의 경우 조사대상 주택 모두가 이러한 형태

의 현관을 가지고 있었으며 하노이 지역의 경우는 현관 앞에 폭이 좁고 길이가 짧은 2, 3단의 계단이 있는 3사례(30.0%)의 주택을 제외하고는 모두 별도의 현관 공간이 없었다³¹⁾(사진 18). 흥이엔 지역에는 신발장을 사용하는 경우가 없었으며 하노이 지역에는 5사례(50.0%)가 신발장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3사례는 문이 없는 선반형 이었으며 2사례는 문이 달린 개폐식이었다. 선행연구에서 재한 베트남인들은 모두 실내에서 신발을 벗고 생활하고 있었으며 모두 신발장을 사용하고 있었다. 원 거주지에서의 신발 착탈이 전통적으로 주택 밖에서 이루어진 것과는 달리 재한 베트남인 주택의 경우 평균 0.8m²의 신발 착탈 공간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이에 대한 만족정도가 평균 4.0점인 것은 재한 베트남인들이 새로운 주거계획 요소에 적응하였음을 의미한다. 원 거주지에서의 슬리퍼 사용이 80.0%(16사례)인 반면 재한 베트남인들의 슬리퍼 사용은 2사례(9.1%)에 불과했는데 이는 실내에서의 슬리퍼 사용이 관습이라기보다는 겨울에 타일 바닥에서의 보온을 위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진 17〉 베란다(하안 낭)의 다양한 활용의 예(흥이엔:N씨택)



〈사진 18〉 주택의 현관이 길가에 직접 면해 있는 예(하노이:T씨택)

30) 겨울에 타일 바닥재가 찬 것에 대비하여 카펫이나 깔개 등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본 연구를 수행한 2월 중순에 방문한 주택에서 2사례는 담요 혹은 카펫을, 2사례는 대자리를 바닥에 깔아둔 것을 볼 수 있었다.

31) 베란다(하안 낭)과 이를 잇는 계단은 우기에 마당의 빗물이 주택 내부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기능이 있다. 하노이 시내에 있는 주택들은 현관이 가로(街路)와 바로 면해 있는 경우가 많아 우기에 빗물이 주택 안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

5) 난방방식의 사용

조사대상 주택 모두 어떠한 형태의 난방 설비도 되어 있지 않았다. 조사대상 지역인 북부 지역은 겨울에는 영하 2도로 내려갈 정도로 춥지만 주공간 및 설비는 2-3개월의 짧은 겨울보다는 무더운 계절에 중점을 두고 계획을 한다. 즉, 주택 내의 통풍이 원활하도록 지붕을 3미터 이상으로 높게 하고, 창문을 많이 만들며, 더위를 막기 위하여 벽을 20센티미터 이상 두껍게 만드는 것 등이다. 조사대상자들이 겨울철의 추위에 대비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 냉난방 에어컨을 사용하는 경우가 8사례(40.0%)가 있었으며 전기난로를 사용하는 경우가 3사례(15.0%) 그리고 둘 다 사용하는 경우가 1사례(5.0%)가 있었다. 조사대상 지역에서 전기장판은 일반적이지 않은 난방 도구인데 현재 전기장판을 가지고 있는 2사례(10.0%)중 1사례는 가끔 사용하고 있었고 나머지 1사례는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았다. 나머지 조사대상자들 중 전기장판을 본 경험이 있는 10사례(50.0%)는 모두 전기장판의 사용을 희망하였는데 반면 전기장판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8사례(40.0%)의 경우에는 4사례(50.0%)만이 사용을 희망하였다. 전체적으로 전기장판의 사용을 희망하는 경우는 70.0%(14사례)로 높았는데 이는 추위에 대응한 설비가 충분하지 않은 조사대상 지역에서 적절한 난방도구를 활용하여 추위를 완화시키고자 하는 요구라 할 수 있다. 조사대상자들은 바닥 난방에 대해서 70.0%(14사례)가 사용하고 싶다고 하였는데 그 실용성의 정도는 대부분의 조사대상자들이 언급하였듯이 비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었다. 선행연구에서 재한 베트남인 주택의 난방방식은 가스 혹은 기름을 사용하는 온수바닥 난방방식이었으며 이에 대한 만족 정도는 3.9점으로 높게 평가되었다.³²⁾ 이는 원 거주지에서 전기난로 등의 부분 난방만을 사용하였던 조사대상자들이 우리나라에서의 추위에 대응할 수 있는 바닥난방 방식에 충분히 적응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아울러 바닥난방 방식이 가장 이상적임을 언급한 것은 원 거주지에서의 보급 가능성까지도 시사한다.

6) 기타 주거관련 항목 평가

주거비용은 우선 홍이엔 지역의 경우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으로 한 달 평균 약 41만 동을 지출하였으며 하노이 지역의 경우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등으로 한 달 평균 약 52만동을 지출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³³⁾ 주거비에 대한 부담 정도는 홍이엔 지역의 경우 평균 3.3점 그리고 하노이 지역의 경우 평균 3.5점으로 두 지역 모두 보통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조사대상자들 중 이주를 희망하는 경우는 총 4사례(20.0%)로 모두 넓은 주택으로의 이주를 희망하였다. 이주 계획이 없는 16사례(80.0%)는 부모에게 물려받았거나 혹은

직접 지은 주택을 자녀에게 물려줄 예정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조사대상자들이 주택 내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간은 거실이 11사례(55.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침실(4사례:20.0%), 부엌(3사례:15.0%), 욕실(2사례:10.0%) 등이었다. 잘 꾸며놓고 싶어하는 공간 역시 거실(18사례:90.0%)이 가장 많았는데 이는 거실이 대부분의 주택에서 가족단위와 손님접대의 중심 공간이며 조상의 제단을 모시는 곳이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대부분(17사례:85.0%)이 주택의 향(向)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으나 현재 거주하는 주택이 남향 혹은 동남향인 경우는 총 9사례(45.0%)였으며 대부분이 홍이엔 지역이었다. 이는 하노이 지역의 경우 좁은 대지에 많은 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주택의 향을 고려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조사대상자들의 현재 주택에 대한 전체적인 만족 정도는 3.6점으로 보통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편, 재한 베트남인들의 주거비용은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등으로 한 달 평균 약 18.6만원을 지출하고 있었고 그 부담 정도는 평균 4.1점으로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재한 베트남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간은 부엌으로 원 거주지의 경우 거실이었던 결과와는 달랐는데 이는 거주지의 이전에 따라 편리한 생활 조건이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주택에서 잘 꾸며놓고 싶은 공간은 원 거주지의 경우와 같은 거실로 파악됨으로써 거실이 이들에게 생활의 중심 공간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주택의 건축 시나 이주시 주택의 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역시 양쪽 지역에서 공통적이었다.

이상과 같이 베트남과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베트남인의 주거 및 주생활에 대하여 관찰한 중심 내용을 표 7에 정리하였다. 먼저, 거실, 식사실, 부엌의 연결유형을 보면, 재한 베트남인 주택의 경우 대부분이 부엌 분리형이었던 반면 홍이엔 지역의 경우 부엌 통합형이 많았고 하노이 지역은 부엌 분리형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베트남과 우리나라의 조사대상자들 모두 신발을 벗는 부엌 유형에 대한 만족 정도가 높았으며 또한 양 지역에서 반 수 정도가 부엌문을 필수 요소로 생각하지 않는 등의 결과는 앞으로 재한 베트남인들을 위한 주택 계획 시 고려해야 하는 계획 요소로서 파악되었다. 욕실의 유형은 재한 베트남인 주택의 경우 변기와 수도시설을 갖춘 정도가 보통이었으나 원거주지의 경우 변

32) 재한 베트남인 주택의 난방방식은 19사례(86.4%)가 가스 그리고 2사례(9.1%)가 기름을 사용하는 온수바닥 난방방식이었다(이영심, 최정신, 2009).

33) 홍이엔 지역의 경우 수도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지하에서 물을 끌어올려 사용한다. 따라서 홍이엔 지역의 모든 주택은 지하에서 물을 끌어올리는 펌프와 지하수를 저장하는 물탱크를 가지고 있다.

〈표 7〉 현지 베트남인과 재한 베트남인의 주거계획 요소의 비교

		현지 베트남인		재한 베트남인
		홍이엔	하노이	
LDK 연결유형	부역분리형	30.0%	70.0%	81.8%
	부역통합형	70.0%	30.0%	18.2%
욕실 유형	변기1실+세면대1실(30.0%) 변기, 세면대 1실 2개(30.0%)	변기, 세면대 1실 3개(20.0%)	변기+수도시설(62.4%)	
욕조의 유무	욕조 없음(80.0%)	욕조 없음(100.0%)	욕조 없음(86.4%)	
세탁기 사용장소	욕실 안 (20.0%) 야외 빨래터 (20.0%)	욕실 옆(40.0%)	욕실, 부엌, 베란다가 각각 27.3%	
현관의 단차유무	없음(100.0%)	없음(70.0%)	있음(86.4%)	
주생활양식	취침	입식(90.0%)	입식(72.7%)	
	가족식사	입식(60.0%)	좌식(72.7%)	
	손님식사	좌식(75.0%)	좌식(90.9%)	
난방 방식	없음(100.0%)	없음(70.0%)	온수바닥 난방방식(100.0%)	
바닥재	거실	타일(95.0%)	비닐(100.0%)	
	침실	타일(95.0%)	비닐(100.0%)	
계		20(100.0%)	22(100.0%)	

기와 세면대를 각각 분리하여 계획하거나 두 개 이상의 욕실을 갖춘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욕조는 재한 베트남 주택에서 대부분 갖추고 있지 않았는데 원거주지에서도 욕조는 보편적이지 않은 설비로 파악되었다. 이들의 주생활 양식은 취침의 경우 베트남과 우리나라의 양 지역 모두 침대를 사용하는 것이 보편적이었으며 식사와 경우 원거주지에서는 식탁 사용이 일반적이거나 우리나라에서는 바닥에서의 식사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양 지역 모두 대가족이 모이거나 손님이 많을 경우에는 바닥에서의 좌식 식사가 보편적인 것으로 나타나 입식의 취침과 좌식의 식사가 이들의 전통적인 주생활 양식이며 이러한 관습이 우리나라에서도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벗기 위한 단차를 계획하는 것은 베트남의 주택에는 보편적이지 않으며 난방 설비 역시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베트남에서는 거실과 침실의 바닥재로 타일을 사용하는 등 우리나라의 경우와는 매우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재한 베트남인의 바닥 난방과 현관의 단차 등에 대한 만족 정도가 높게 나타난 결과는 이들이 우리나라의 주생활에 동화되었음을 의미하며 이는 앞으로 이들을 위한 주택 계획 시 적용 가능한 계획 요소인 것으로 사료되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베트남의 홍이엔 지역과 하노이 지역에 거주하는 베트남인의 주거 및 주생활을 관찰하고 이를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베트남인의 경우와 비교 고찰한 결과이다. 본 연구

결과는 앞으로 재한 베트남인 이주 노동자를 위한 주거 계획 시 계획 요소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베트남의 홍이엔과 하노이 지역의 조사대상자들 모두 부엌이 본채와 떨어진 형태보다는 주택 내에 있는 것을 선호하였으며 부엌의 위치는 두 지역 모두 거실 혹은 식사 공간에 가까이 있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재한 베트남인 조사대상자들 역시 거실, 식사실, 부엌이 한 공간에 통합되어 있는 형태에 대한 만족 정도가 높았으며 이들의 반수 정도가 부엌문이 없어도 좋다고 답함으로써 부엌이 거실 혹은 식사실과 가까이 있는 형태가 적합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그러나 이들의 부엌문에 대한 요구 정도를 고려할 때 부엌과 기타 공간 사이에 간벽(間壁) 등을 사용한 절충식 형태가 적합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둘째, 베트남의 두 지역과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조사대상자들 모두 부엌의 면적에 대한 만족 정도가 높지 않았는데 양 지역에 거주하는 조사대상자들의 대다수가 부엌에서 김치를 담그는 것으로 파악됨으로써 부엌 면적에 대한 만족 정도는 식생활 문화화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주택 계획 시 이들의 관습을 고려하여 부엌의 면적을 계획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셋째, 원 거주지인 홍이엔 지역에서 조사대상 주택의 60.0% 이상 그리고 하노이 지역에서 조사대상 주택의 70.0% 이상이 두 개 이상의 욕실과 화장실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으로써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베트남인의 주거에서 특히 불편한 요소는 욕실과 화장실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원 거주지에 비하여 제한된 주거 공간에서 생활해야 하는 재한 베트남 이주 노동자들에게 욕실과

화장실이 함께 있는 형태보다는 분리한 형태가 사용 면에서 더 효율적일 것으로 사료되었다. 넷째, 베트남의 홍이엔 지역과 하노이 지역 모두 욕조의 보유율이 낮았으며 이는 재한 베트남인 조사대상 주택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욕조가 없는 것은 현재의 경제 상황과도 관련이 있겠으나 원 거주지의 경우 무더운 기후에 대응하여 간편하게 자주 샤워하는 방식이 관습화되었기 때문에 사료되며 베트남과 우리나라의 조사대상자들 모두 욕조의 실용성을 낮게 평가함으로써 욕실 계획 시 욕조는 이들에게 필수적이지 않은 항목으로 평가되었다. 다섯째, 베트남의 홍이엔과 하노이 지역의 조사대상자들 모두 이상적인 세탁기의 사용 장소로서 별도의 세탁 공간을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홍이엔 지역과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조사대상자들이 욕실에서 세탁기를 사용하는 것은 현재의 주거 상황에 의거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베란다 혹은 세탁실 등 별도의 공간을 세탁 공간으로서 제공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으며 베트남과 우리나라의 조사대상자들 모두 세탁기와 손빨래를 병행하는 것으로 파악됨으로써 이를 위한 공간과 설비가 요구되었다. 여섯째, 베트남의 홍이엔과 하노이 지역 그리고 우리나라의 조사대상자들 모두 취침 시에는 침대를 사용하는 입식을 지향하고 있었고 식사는 식탁의 사용과 함께 바닥에서의 좌식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원 거주지에서 손세탁과 김치 담그기 이외에 다림질, 화장, 독서 등 대부분의 주생활을 입식으로 하였던 재한 베트남인들이 우리나라로 이주한 후 이러한 주생활을 좌식으로 하는 것은 현재의 주거 상황에 적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고려하여 앞으로 재한 베트남인 이주 노동자들을 위한 주거 공간의 계획 시 관습적인 입식의 취침방식과 좌식의 식사 방식을 포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일곱째, 베트남의 홍이엔과 하노이 지역에 거주하는 조사대상자들은 타일 바닥재에 그리고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조사대상자들은 비닐 바닥재에 대한 만족 정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이들을 위한 주택 계획 시 우리나라의 기후를 고려한 비닐 바닥재를 사용하는 것은 이들에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었다. 또한 원 거주지의 주택에는 없는 신발 착탈을 위한 공간 역시 재한 베트남인들 조사대상자들에게 그 만족 정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됨으로써 주택 계획 시 이 공간을 계획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여덟째, 원 거주지의 기후 조건을 고려하여 전통적으로 난방 설비를 하지 않는 베트남의 주거 환경에 익숙한 재한 베트남인 조사대상자들이 이주 후 우리나라의 온수난방 방식에 적응하고 이에 대하여 만족하는 것은 이들이 우리나라의 주거 환경에 동화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따라서 이들을 위한 주택 계획에는 온수난방 방식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아홉째, 베트남과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조사대상자들 모두가 잘 꾸미고 싶은 공간으로서 거실을 든 것은 거실이 가족단위와 손님접대를 위한 공간일 뿐 아니라 조상을 모시는 공간으로서 주택의 중심이라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주택 계획 시 주택의 규모별로 거실의 위치 및 크기에 대한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본 연구에서 결론으로 제시한 재한 베트남 이주 노동자들을 위한 주택 계획 시 고려해야 하는 계획 요소들은 주거의 규모에 따라 조절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이러한 연구 방법을 통하여 기타 다양한 지역의 주거 문화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으며 그 연구 결과를 해당 지역 출신의 이주 노동자들을 위한 주거 계획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참고문헌

- 경기개발연구원(2006). 외국인근로자 정주실태 및 정책수요 조사. 경기개발연구원. 정책연구. 2006-11.
- 국가인권위원회(2002). 국내 거주 외국인 노동자 인권실태 조사 보고서.
- 노동부, 법무부(2008.9.25). '외국인력 도입, 기업의 인력 수요에 맞도록 개편' - 보도자료.
- 매일경제(2008.2.5 제13068호 1면). '한국 10년 내 다민족국가 된다'. 보도자료.
- 베트남플라자 편집부(2007). **이것이 베트남이다**. 서울: 와이미디어.
- 석현호, 정기선, 이정환, 이혜경, 강수돌(2003). **외국인 노동자의 일터와 삶**. 경기도: 지식마당.
- 유엔 티 항(2008.8.2). '재한 베트남 이주 노동자의 날' 노동보훈사회부 장관 축사 자료.
- 이영심, 최정신(2007). 재한(在韓) 조선족(朝鮮族) 이주 노동자를 위한 주거 계획 -한국과 중국에 거주하는 조선족의 주거 및 주생활에 대한 고찰-. **대한가정학회지**, 45(9), 15-26.
- 이영심, 최정신(2008). 우즈베키스탄과 한국에 거주하는 고려인(高麗人)주거에서의 지속과 변화-재한(在韓)고려인 이주 노동자의 주거 지원을 위한 탐색-. **대한가정학회지**, 46(8), 55-72.
- 이영심, 최정신(2009). 재한(在韓) 베트남인 이주 노동자의 주거 및 주생활-우리나라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7(2), 39-53.
- 이희봉(1998). 재미 교포 주거 건축을 통한 사용자 문화 현장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4(11), 103-114.
- 전봉희, 이경아, 주상훈(2006). 다락과 중정으로 본 하노이

도시주택의 지속과 변용.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2(11), 241-252.

중앙일보(2007.7.8 제17호 10면). '서울 속 외국인 마을 10곳 심층해부'. 보도자료.

한국일보 인터넷판(2008.4.21). '외국인 노동자 150만 시대 <上>외국인 밀집촌, 원곡동, 보도자료.

Nguyen, M. T.(2008). *Hanoi Architecture. An informal notebook of a jumble city*. Science and Technics Publishing house : Hanoi.

Nguyen, V. P., Nguyen, T. H., & Cohen, B.(2006). *Hanoi Streets of The Old Quarter and Around Hoan Kiem Lake*. The Gioi Publishers : Hanoi.

Thuy, V. S.(2002). **베트남 베트남사람들**. 배양수(역). 서울: 대원사. (2000년 원저발간).

<http://cafe.daum.net/mburian/Jix/3> 안동지역 외국인 이주여성회 <우리는 그래서, 한국으로 간다>

③베트남, 그들의 코리안 드림. 2008.3.22.
<http://cafe.daum.net/viethoa/CNyR/178> [베트남] 중산층 부쩍 늘어 만들면 불티.

<http://cafe.daum.net/youtongin/fZv/173> 하노이 도시현황 2005.3월 현재.

<http://dantri.com.vn/c20> 베트남인의 평균 연수입.

<http://migrant.nodong.net/ver3/> 2009. 외국인인력도입을 비판한다.

<http://www.foa2002.or.kr/> 아시아의 친구들 <지역과 이주노동 정책> 2008. 2.6.

<http://www.hungyen.gov.vn> 흥이엔 지역의 평균 연수입.

접 수 일 : 2009년 4월 29일

심사시작일 : 2009년 5월 8일

게재확정일 : 2009년 6월 17일